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간다

쟁의행위찬반투표 85% 찬성 가결 ... 공동결정법·노조법개정 국민동의청원 조직에 박차

금속노조가 7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9만 8천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85%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2021년 중앙·지부집단·사업장보충·대각선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 재적인원 97,691명 중 89%인 87,044명이 참여해 74,133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7월 중으로 조합원 11만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코로나 19 확진 등으로 교섭을 늦게 시작하기 자동차지부,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현대제철 다섯 개 지회 등 4만여 명도 교섭 상황에 따라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희생과 파괴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노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일자리의 보장을 위해 올해 모든 교섭단위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노동자의 산업전환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이 과정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동결정법 제정’과, 산별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조법 개정’ 국회 10만 입법청원 조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높은 찬성률의 배경으로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높아진 조합원들의 분배 정의 요구 ▲문

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 등을 꼽았다.

지난해 갑자기 터진 코로나 19 사태로 노동자들은 희생을 강요당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모든 업종이 예상치 못한 호황을 누렸지만, 자본은 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자를 압박했다. 자본은 그사이 경영진 연봉을 인상하고 배당금을 늘리며 자기 배를 불렀다. 노조는 자본의 뒤통수치기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분노가 찬성률을 높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방역을 핑계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규제하고, ILO 핵심협약을 핑계로 노조법을 개악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이 노동자들을 돌아서게 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면파업·고공농성

6일, 조경근 지부장 크레인 농성 ... “조합원 권리와 자존심 지키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7월 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울산 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전면파업을 선언한 7월 6일 오전 9시쯤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이 장대비를 뚫고

고 현중 조선소 패널공장 앞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조경근 지부장은 교섭 타결까지 고공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경근 지부장은 “회사는 노조가 전면파업을 경고했음에도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다. 교섭하는 시늉만 하는 회사에 기대할 것

이 없다” 라면서, “조합원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는 각오로 고공농성 끝장투쟁을 결심했다” 라고 투쟁 각오를 전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800여 명의 조합원이 크레인 아래에 모여 조경근 지부장을 엄호했다.

“금속노조 총파업 · 입법청원 제대로 조직하자”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 “LG 재벌 노조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가 7월 7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를 외쳤다.

코로나 19와 경찰도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기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날 ‘노조법 2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노동3권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9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했다.

진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교육부장과 황미진 KEC지회장이 공동으로 대회 사회를 맡았다. 두 사람은 매끄럽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참가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금속노조 문화패의 힘찬 공연으로 집회의 막이 올랐다.

한껏 분위기가 오른 가운데 연단에 오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자당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낸 채, 여당인 한나라당과 교섭창구단일화법을 날치기한 지 딱 10년째다. 추미애는 망치질 세 번으로 노동자들의 운명을 갈랐다. 징글징글하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의 100개가 넘는 사업장이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지치지 말자. 노조법 개정,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7월·8월·9월 총파업으로 제대로 투쟁하자” 라고 결의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벌이는 ▲공동결정법 제정 ▲노조법 개정 10만 입법청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



다.

최근 지회를 설립한 김혜현 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장은 투쟁사에서 “LG 재벌은 꼭두각시 기업노조를 앞장세워 차별이라는 무기로 지회를 탄압하고 있다” 라며, LG전자가 진급·과과·타임오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자행하면서 민주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혜현 지회장은 “엘지전자는 지회 설립을 축하한다며 혁신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자 했다” 라면서, “뒤

통수치는 게 엘지전자가 자랑하는 혁신 노사관계인가? 이것은 혁신 노조 탄압이다” 라고 꼬집었다. 김 지회장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걸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외쳤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 시작 전에 ‘노동삼권’이라는 글자를 걸고 행사를 공모했다. 노조는 공모 참가자 가운데 ▲조남덕 콘텐탈지회장 ▲정중훈 르노삼성지회장 ▲윤재석 포항지부 조직부장 ▲이미옥 KEC지회 법규부장이 제출한 글을 뽑았다.